

日本 太山寺 소장 국왕발원사경의 연대에 관한 고찰

The Study on the Scripts Prayed by King of Koryo Dynasty
of Taijanji Collection in Japan

권 희 경(Kwon, Hee-Kyung) *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2.2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사경의 제작년대의 제문제 |
| 2.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사경의 연대 추정
에 대한 고찰 | 2.3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에 나타난 서체의 특징 |
| 2.1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사경의
형상 | 3. 結 論 |

<초 록>

日本 太山寺 소장으로 神戸市立美術館에 기탁되어 있는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은 年号에 대한 기록은 없고, <甲子歲>라는 기록만 보여 甲子歲가 元宗 5년인 1264년인지 충숙왕 11년인 1324년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大原嘉豊씨는 「高麗國王大藏寫經からみた元朝の宗教政策-太山寺所藏大吉祥陀羅尼・普賢陀羅尼の制作年代の問題に寄せて-」에서는 <甲子歲>라는 기록에 초점을 맞추어 高麗 元宗 5년인 1264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寫經의 表紙畫 양식은 오히려 鍋島報效會所藏으로 佐賀縣立博物館 기탁품인의 「妙法蓮華經」8권본의 表紙畫와 같다. 이러한 점에서 忠肅王代에 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충렬왕 이후 계속되어 온 고려국왕사경과는 또 다른 종류의 고려국왕발원사경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특히 서체의 양식에서도 이미 松雪體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충숙왕대의 甲子年인 忠肅王 11년인 1324년 작품일 가능성이 높고 「金書密教大藏序」에 나타난 「金書密教大藏經」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요어 : 函次, 金・銀字院, 高麗國王發願寫經

* 대구가톨릭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교수(hkkwon@cu.ac.kr)

접수일: 2005년 6월 7일 최초심사일: 2005년 6월 10일 심사완료일: 2005년 6월 20일

<ABSTRACT>

Since there is no production year, but only record of gapja year(甲子歲) on the scripts buddhist's teaching great sri dharani and buddhist's teaching Samantabhadra dharani prayed by king of Koryo dynasty, it is difficult to know the definite production year. Therefore it has been discussed for a long time whether the gapja year be 5th year of king Wonjong(AD 1264) or be 11th year of king Chungsuk(AD 1324).

In special in the paper of Ohara(大原嘉豊), the religion policy of Yuan kingdom by studying the script of great sutra prayed by king of Koryo dynasty - concerning the production year of great sri dharani and Samantabhadra dharani in Taijanji collection in japan, he postulated the works would be produced in 5th year of king Wonjong in Koryo dynasty because his thought was centered on the record of gapja year.

However, it is considerable that this work should be produced in the era of king Chungsuk, because the style of cover painting of this script is identical to that of 8 volumes of Saddharmapundarika-sutra deposited in Saga provincial museum, and it is justifiable that this script should be another script prayed by king of Koryo dynasty which had been produced after king Chungreol.

In addition, it can not escape to say that this work would be produced in gapja year of 11th year of king Chungsuk(AD 1324) because the letter style in the script had been already characterized as Songseol(松雪), and it can not also completely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this script would be a great Tantric sutra written in gold letter(金書密教大藏經) presented in Introduction of great Tantric sutra(金書密教大藏序) written in gold letter.

1. 머리말

日本 太山寺 소장으로 神戸市立美術館에 기탁되어 있는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寫經은 高麗國王發願寫經으로서 유일하게 尾書에 기록된 發願文에서 年号가 빠져 있어 새로운 양식으로 학계는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술사 쪽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인문학분야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甲子歲高麗國王發願寫成 / 金字大藏」이라는 尾書로 高麗國王發願寫經임을 알 수 있으나, 年号 없이 甲子歲라고만 적고 있어, 이 기록만으로는 확실한 연대를 알 수 없다.

현재까지 이 사경에 대해 집필한 논문에서는 元宗 5년인 1264년의 작품으로 보는 경우와 忠肅王 11년인 1324년으로 보는 경우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¹⁾

이러한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사경을 權熹耕은 「年代 불확실한 高麗寫經의 表紙畫에 관한 연구(Ⅱ)」에서 표지화 양식이 忠肅王 복위원년(1332)에 제작된 鍋島報效會소장으로 佐賀縣立博物館에 기탁되어 있는 「妙法蓮華經」8권본과 양식적으로 같아 충숙왕대의 작품으로 추정한 바 있다.²⁾ 이에 대해 大原嘉豊 씨(이후부터 존칭은 생략함)는 「高麗國王大藏寫經からみた元朝の宗教政策-太山寺所藏大吉祥陀羅尼・普賢陀羅尼の制作年代の問題に寄せて-」

1) (ㄱ) 大阪市立美術館, 「神戸・泰山寺の法華・粧飾經の美をつめて-」(1997), 59, 85.

(ㄴ) 權熹耕, “年代 불확실한 高麗寫經의 表紙畫에 관한 연구(Ⅱ),” 「書誌學研究」 제28집 (2003. 6), 50.

(ㄷ) 大原嘉豊, 「高麗國王大藏寫經からみた元朝の宗教政策-太山寺所藏大吉祥陀羅尼・普賢陀羅尼の制作年代の問題に寄せて-」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岩井茂樹編 「中國近世社會の秩序形成」, 23-59.

(ㄹ) 松林宏典, “太山寺所藏の高麗國王發願金字寫經,” 神戸市立博物館 發行 「研究紀要」 제 19호, 24.

2) 앞의 글, 「年代 불확실한 高麗寫經의 表紙畫에 관한 연구(Ⅱ)」에서 충숙왕 복위원년(1332)에 제작된 佐賀縣立博物館에 기탁되어 있는 「妙法蓮華經」8권본과 표지화의 양식이 같아 충숙왕대 작품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충숙왕 복위년간이라고 기술한 오류를 범하였으므로 바로잡음.

에서 <甲子歲>라는 기록에 초점을 맞추어 高麗 元宗 5년인 1264년에 제작된 것으로 년대를 추정하였고,³⁾ 神戸市立博物館에서 발행하는 『研究紀要』에 실린 松林宏典씨의 「太山寺所藏の高麗國王發願金字寫經」에서도 역시 年号가 기록되지 않은 점을 들어 고려 元宗 5년인 1264년으로 보았다.

이 사경이 元宗代의 사경인지 아니면 忠肅王代의 사경인지에 대한 논란은 고려미술사의 한 축을 밝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고려의 불교사연구와 서지학 등의 연구에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函次연구에 주안점을 두고 元의 佛教史的 觀點에서 이 사경을 원종 5년의 사경으로 보고 있는 大原嘉豊의 「高麗國王大藏寫經からみた元朝の宗教政策-太山寺所藏大吉祥陀羅尼・普賢陀羅尼の制作年代の問題に寄せて」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가면서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사경의 제작년대에 대해 검토 하고자 한다.

2.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사경의 년대 추정에 대한 고찰

2.1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사경의 형상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의 체제는 卷子本으로 靑紙金字 사경으로서 日本에 전래된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江戸時代 이후부터 太山寺에 보관되어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⁴⁾<도1><도2-1><도2-2>

사경의 체제는 「佛說大吉祥陀羅尼經」과 「佛說普賢陀羅尼經」을 합본한 것으로 「佛說大吉祥陀羅尼經」이 寫書되고, 이어서 「佛說普賢陀羅尼經」이 寫書되어 있다.

사경의 軸은 원통형을 반으로 자른 가는 목심으로 상하에는 금속의 장식이

3) 앞의 글, 「高麗國王大藏寫經から元朝の宗教政策-太山寺所藏大吉祥陀羅尼・普賢陀羅尼の制作年代の問題に寄せて-」 p.47.

4) 앞의 글, 「太山寺所藏の高麗國王發願金字寫經」 p.24.

있는데, <도3> 표지종이가 안으로 이 목심을 감싸고 있는 형상이다.

- 이 사경의 크기는 세로가 30.9cm 이고, 가로가 총 길이 241.4cm이다
- 표지화도 변상화도 두루 갖추고 있는데, 양쪽 다 상태가 좋지 않다
- 표지화와 변상화는 앞뒤로 붙어 있는 형상이다.
- 표지의 크기는 세로가 30.7cm, 가로가 16.8cm이고, 변상은 세로 18.9cm, 가로 25.2cm이다.
- 표지에는 연화당초문이 그려져 있고, 변상화는 독존의 신장상이 그려져 있다.
- 표지는 이중의 은니선 안쪽으로 다시 金泥로 線을 그어, 그 안에다 表題를 쓰고 있다. 이러한 표제 아래쪽에 金泥-銀泥-金泥로 원을 그린 속에 函次인 陪가 기록되어 있다.
- 표지화는 화심부분의 꽃술과 당초줄기는 金泥로, 蓮瓣과 꽃잎은 銀泥로 그려져 있다. 연화문이 重瓣으로 그려진 점은 고려사경 표지화의 일반적 양식을 따르고 있으나, 蓮瓣이 6瓣으로 그려진 점은 高麗寫經 表紙畫의 일반적 양식과는 다르다.

이러한 표지화 양식과 거의 같은 작품이 하나 더 있으니, 忠肅王 復位 元年(1332)에 제작된 鍋島報效會소장으로 佐賀縣立博物館에 기탁되어 있는 「妙法蓮華經」8권본(이하 「妙法蓮華經」8권본으로 칭한다.) 표지화를 들 수 있다.<도4>

神將像은 전체적으로 상태가 나쁘지만, 특히 중간부분의 훼손이 심해 명확히는 알 수 없으나, 대개 持物을 양손으로 쥐고 있는 형상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도5> 머리부분과 허리 아래 부분은 그런 중에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日本 京都國立博物館 소장으로 尾書의 발원문에 의해 忠烈王 2년(1276)에 高麗國王發願으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는 「文殊師利問菩提經」의 사경변상화와 거의 같은 양식이다.<도6>

그리고 「佛說大吉祥陀羅尼經」부분에 해당하는 第四紙의 뒷면에 쓰인 裏書에는 佛說大吉祥陀羅尼經/ 陪/ 山人 日正이라고 적고 있다<도7>

2.2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사경의 제작 년대에 대한 고찰

앞서도 말한바와 같이 「普賢陀羅尼經」의 末尾에 기록되어 있는 「甲子歲高麗國王發願寫成 / 金字大藏」이라는 尾書로 일단 高麗國王發願寫經임은 명확히 알 수 있다.

이 사경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高麗國王大藏寫經からみた元朝の宗教政策-太山寺所藏大吉祥陀羅尼・普賢陀羅尼の制作年代の問題に寄せて-」에서 大原嘉豊는 <甲子歲>라는 기록에 초점을 맞추어 고려 元宗 5년인 1264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므로 먼저 이 논문의 년대 추정에서 의문 나는 점을 짚어 보고, 여기에서 다시 제작 년대에 대한 고찰을 행하고자 한다.

大原嘉豊은 「高麗國王大藏寫經からみた元朝の宗教政策-太山寺所藏大吉祥陀羅尼・普賢陀羅尼の制作年代の問題に寄せて-」의 제1장에서

첫째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을 忠肅王 11년(1324)의 甲子年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서 한해 뒤인 泰定 2년(1325)에 寫成된 것임이 발원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고, 또한 函次인 禽字 역시 고려의 再雕藏經의 函次와 같은 「阿育王太子壤目因緣經」의 표지화의 양식과 이 사경의 표지화 양식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⁵⁾<도8-1><도8-2>

「阿育王太子壤目因緣經」의 표지화 양식은 忠肅王 元年(1276)에 제작된 고려 국왕발원사경이라는 것을 尾書 통해 알 수 있는 「不空羂索神變眞言經」의 표지화양식<도9>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상하 8瓣의 연판양식이나 화심을 둘러싸고 있는 꽃잎의 양식은 「不空羂索神變眞言經」이후 고려사경의 일반적 표지화양식이 되었다는 점에서 「阿育王太子壤目因緣經」의 표지화가 「不空羂索神變眞言經」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는 점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판양식으로부터 생각 한다면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

5) 앞의 글, 「高麗國王大藏寫經からみた元朝の宗教政策-太山寺所藏大吉祥陀羅尼・普賢陀羅尼の制作年代の問題に寄せて-」 p.31.

尼經」표지화는 분명 忠烈王 이후의 高麗國王發願의 사경표지화와는 또 다른 고려국왕발원사경의 표지양식의 특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시켜 「妙法蓮華經」8권본의 표지화를 살펴보니 아니할 수 없다.

忠肅王 伏爲 元年(1332)에 제작된 「妙法蓮華經」8권본은 玄哲 法譜 두 승려와 王旨를 假託할 만큼 강력한 親元系의 인사로서 元의 中瑞司 承을 지낸 吳季儒에 의해 제작된 사경이다.⁶⁾ 이 사경의 표지화양식은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사경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 예를 찾을 수 없는 사경표지화였다.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의 표지화가 상술한 바와 같이 연화는 重辦의 상하연관이 여섯 개씩⁷⁾이다. 특히 꽃잎은 아래쪽으로만 그려지고, 위쪽은 이중의 꽃술로 처리된 점에 있어서는 「妙法蓮華經」8권본 표지화의 양식적 출처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한다.

또한 「妙法蓮華經」8권본이 충숙왕 복위 원년인 1331년이므로 甲子年인 1324년보다 불과 7년 후의 작품이라 점에도 관심을 두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고려국왕발원의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사경표지화를 그린 畫佛師의 숨씨가 개인 발원사경인 「妙法蓮華經」8권본의 표지화의 연결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妙法蓮華經」8권본은 변상화나 서체에 비해 표지화의 숨씨가 월등히 우수하다는 점과 吳季儒에 의해 제작된 점을 미루어 볼 때, 두 사경의 어떤 연결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은 忠肅王代에 이르면 “고려가 완전한 원의 속국이 되었으므로 감히 年號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의 전제하에서 고려왕가로서는 대내적으로 미묘한 시기에 있었던 1264년에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이 제작 되었을 것”⁸⁾이라는 가

6) 권희경, 「高麗寫經의 研究」(미진사, 1986), 414.

7) 忠烈王 이후의 高麗寫經은 國王發願寫經이든지 個人發願寫經이든지 16개의 重辦으로 표현되고 있다.

8) 앞의 글, 「高麗國王大藏寫經からみた元朝の宗教政策-太山寺所藏大吉祥陀羅尼・普賢陀羅尼の制作年代の問題に寄せて-」 p.31.

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제2장에서는 “원 황실과의 혼인을 통해서 정권의 기반을 두고 있는 高麗王家가 원 황실의 정책과 동향에 맞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럽다”⁹⁾고 까지 언급하면서 그러한 관점에서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이 원종 3년(1264)의 작품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大原嘉豊의 이러한 발상은 고려의 문화유산인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의 연구에서 고려에 관한 기록을 너무 소홀히 하고 元 중심의 고찰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고려가 완전한 속국으로 전락한 忠肅王代에 대해 年号를 쓰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이론은 元宗代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해 두고 싶다. 忠肅王代에 元과의 어려움보다 원종대가 고려로서는 더 어려운 시기였는지 모른다.

이러한 고려의 고통의 나날을 『高麗史』世家 元宗 卽位年 8월조에서부터 찾아 볼 수 있다.

최의(崔瑄)가 죽은 후, 元의 世祖는 고려에 대해 出島를 강조하고, 南京이나 西京 등지에 임시로 도읍을 선택하는 것은 고려의 편의에 따라 하라고 명하였지만, 希實 등이 蜀山을 넘어 南庭行在所로 쫓아가 3월 15일에 처음 황제를 알현했을 때, 고려가 매양 식언을 하는데 무엇 하려 왔느냐고 호통을 친 일 등 『高麗史』의 원종 卽位年과 元年의 기록들에서 고려가 얼마나 원의 눈치를 살폈는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더구나 국내적으로 이미 親元 세력이 형성되어, 더욱 원의 눈치를 살펴야 했으니, 즉위년에 洪福源 아들이 사람을 시켜 원 황제에게 원이 고려가 항복하고 섬으로부터 나온 것이 진정이 아니라고 고한 기록 등이 이에 해당 한다.¹⁰⁾ 또 元宗 元年 3월에는 元의 황제가 아직 즉위하지 아니하였을 때, 원의 태자가 귀경길에 西京에 이르러 8・9일을 머물었다고 하여 고려에 변경이 있지 않은가¹¹⁾를 의심하였다는 기록 등에서도 몽고의 고려에 대한

9) 앞의 글, 『高麗國王大藏寫經からみた元朝の宗教政策-太山寺所藏大吉祥陀羅尼・普賢陀羅尼の制作年代の問題に寄せて-』 p.31.

10) 『高麗史』世家 원종 즉위년 11월 계묘조

의심과 경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왕 3년 9월의 『高麗史』기록에는 몽고가 사신을 보내와 鶴子(매)와 好銅을 구하매, 鶴子 20首와 好銅 612근과 黃白紙 각 100 장을 보내며, 奏하기를 好銅을 赤銅으로 의심하여 물으니, 호동은 赤銅이 아니라 甝쇠라는 사실을 알고, 六品에 이르기 까지 차등 있게 거두었으나 612근밖에 거두지 못해, 몽고가 요구한 2만근을 채우지 못하였음은 甝쇠는 압록강 이남에서는 원래 소산되지 않고, 오직 漢土에서 난다는 내용을 奏한 사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 12월에 高麗가 진기한 금수를 바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았으며, 또 好銅의 양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황제가 대노한 사실이 기록되고 있어¹²⁾, 고려가 이 시기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몽고가 고려에 대한 의심의 고삐를 늦추지 않은 것은 원종 10년까지 이어진다¹³⁾

그 뿐만 아니라 元宗代에도 年号를 고려에 알려 왔음도 알 수 있으니, 충숙왕 3년 12월에는 몽고로부터 曆書를 반포하였다는 기록도 있고, 원종 원년 5월 19일에 元이 年号를 세워 中統 元年이라고 하였다는 기록도 있다.¹⁴⁾ 元宗 5년 2월에는 中統 5년의 曆日을 一道를 사하였다는 기록과 함께 10월 戊申에는 상장군 申思恣이 조서를 가지고 몽고로부터 돌아 왔는데 황제가 年号를 고쳐 至元이라고 하고 천하에 大赦하였다고 전하는 『高麗史』世家 元宗代의 기록들을 살펴 볼 때, 元宗代에 元 世祖의 年号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忠肅王代보다 더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려의 형편으로서 국왕이 과연 금니의 사경을 제작하면서 연호를 쓰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아니 할 수 없다.

또한 『高麗史』『高麗史節要』가 엄밀히 말해서 조선에 와서 정리된 만큼 史書의 자료로서는 이차자료라 할지라도 이들 기록에서는 忠烈王代에는 金字院

11) 『高麗史』世家 원종 원년 4월

12) 『高麗史』世家 원종 3년 12월 경오

13) 『高麗史』世家 원종3년 12월

14) 『高麗史』世家 원종 원년.

에 관한 기록이나¹⁵⁾ 元으로 정용당해 간 寫經僧들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어¹⁶⁾ 현존하는 충렬왕대에 제작된 고려국왕발원사경들의 의미를 확실히 해 준다. 게다가 忠烈王 23년에 고려가 郎將 黃瑞를 시켜 금으로 그림을 그린 자기를 바쳤다는 기록¹⁷⁾은 충렬왕대에도 금에 관한 사항에 엄격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의 깊게 보지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元宗대의 「高麗史」 「高麗史節要」 기록에서는 寫經院이나 金·銀字院에 관한 기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단지 장경과 관련된 기록이 단 한번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도 금자원이나 사경원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원종 13년에 細函造成都鑑를 두었다는 기록이다. 원의 황후가 藏經을 담고자 구하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을 뿐이다.¹⁸⁾ 그 뿐만 아니라 元宗代에는 그 어디에도 장경이 완성되어 국왕이 이를 경찬하기 위해 행차 한 기록조차 없다. 이러한 점에서 생각해 볼 때 元宗代에 國王發願의 金字寫經의 制作이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도 생긴다.

제2장에서는 大原嘉豊가 函次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통하여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을 忠肅王代의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大原嘉豊는 먼저 滋賀縣 西明寺소장의 「蘇悉地羯羅供養法」上이 발원문이 없어 확실한 년대를 알 수 없으나, 1행 14자의 사경체제나 표지화, 변상화가 고려국왕발원의 사경들과 같아, 고려국왕발원 사경일 가능성에 대해 언급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¹⁹⁾ 표지에 쓰인 函次 容字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蘇悉地羯羅供養法」上이 忠肅王 재위기간 중에 李濟賢에 의해 서문이 쓰인 「金

15) 「高麗史節要」卷二十, 忠烈王 7년 3월, 「高麗史」世家 卷第二十九, 忠烈王 9년 9월, 「高麗史」世家 卷第三十, 忠烈王 14년 5월, 「高麗史」世家 卷第三十, 忠烈王 15년 10월, 「高麗史節要」二十一卷 忠烈王 15년, 忠烈王 31년, 「高麗史」권제123 列傳 36 悖行 嚴승익조

16) 「高麗史」世家 卷第三十, 忠烈王 16년, 3월, 4월, 8월, 「高麗史」世家 卷第三十一, 忠烈王 23년, 8월, 「高麗史節要」二十一卷 忠烈王 23년, 「高麗史節要」二十二卷 忠烈王 28년 「高麗史」世家 卷第三十一 忠烈王 28년, 4월, 「高麗史」世家 卷第三十一, 忠烈王 31년, 12월.

17) 「高麗史」卷第三十一, 「高麗史節要」21卷.

18) 「高麗史」卷第二十七, 「高麗史節要」卷十九卷, 「高麗史節要」제1 권

19) 林進, 「高麗의裝飾經」, 朝日新聞社, 「高麗의佛畫1」, 1981, 2, 25일 p.35. 및 權熹耕, 「高麗寫經의 研究」, 1986, 292.

書密教大藏序」²⁰⁾가 기술하고 있는 <金書密教大經> 일 가능성에 대한 그의 의견 과도 맞물려 있다.

大原嘉豊는 「蘇悉地羯羅供 養法」上의 표지에 쓰여진 函次 容字가 高麗大藏經에서는 발견 할 수 없다는 점을 들면서 「蘇悉地羯羅供養法」上이 延祐年間に 제작된 <延祐藏經(大原嘉豊가 가칭한 명칭임)>을 저본으로 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비하면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의 函次 陪字가 고려장경의 函次에 맞는다는 점에서 이 사경이 忠肅王 11년의 갑자년 이 아니라 원종 5년의 甲子年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²¹⁾

이러한 大原嘉豊의 해박한 函次에 대한 函次에 대해 전공지식을 갖추지 못 해 논리를 통한 합리적인 답을 할 수 없음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²²⁾ 그럼에도 불구하고 大原嘉豊의 논리에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많은 양해가 있기를 바란다.

첫째 元 世祖의 補訂事業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至元錄」의 函次와 근래 延祐年間に 제작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중국 출토의 경전자료들의 函次를 비교하여 이들 자료에 나타나는 函次가 「至元錄」의 函次에 한자씩 밀리고 있다는 점을 부각 시켜, 고려장경의 函次를 그대로 사용한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이야말로 忠肅王代의 작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러한 그의 논리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가 제시한 최근에 發現된 延祐年間の 자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大原嘉豊는 1987년 「文物」에 실린 許慧利의 「北京智化寺發現元代藏經」의 연구를 주목하고 있다. 이 논문에 의하면 1984년 北京 智化寺의 佛像胎內에서 발견된 元版大藏經 殘卷 「대보적경(大寶積經)」제5권, 「大金色孔雀王呪經」과 「陀

20) 韓國學 文獻研究所 編, 서울: 亞細亞文化社 간행. 158-159.

21) 앞의 글. 「高麗國王大藏寫經からみた元朝の宗教政策-太山寺所藏大吉祥陀羅尼・普賢陀羅尼の制作年代の問題に寄せて-」 p.33.

22) 권희경, 「高麗寫經의 研究」(미진사, 1986), 이 책에서 고려국왕발원사경들의 函次의 帙号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음을 大原嘉豊씨가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函次에 관해서 명확히 알지 못했던 관계로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羅尼集經」제3권이 모두 1행 14자이고, 특히 「大金色孔雀王呪經」의 경우 尾書에 「大元延祐丙辰三月 日」이라는 기록이 있어, 延祐 3년(1316)에 제작된 판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 관심을 두고, 나머지 두 권도 이 시기의 경전으로 주목하고 있다. 그는 이들 3 권의 函次를 원 세조의 「至元錄」의²³⁾ 函次와 비교하고 있다.

大原嘉豊는 이들 경전의 函次는 「大寶積經」제5권은 鳥字이며, 「大金色孔雀王呪經」는 積字이고, 「다라니집경」의 福字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제하고, 「至元錄」에서 「大寶積經」의 경우는 函次가 같지만, 「大金色孔雀王呪經」에서는 惡字로, 「다라니집경」 積字로 나타나고 있어, 「至元錄」의 函次보다 한자씩 밀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²⁴⁾ 이와 같이 北京 智化寺의 元代藏經들이 元 世祖의 「至元錄」 函次와 다를 뿐만 아니라 仁宗 延祐元年부터 본격화되어 次代의 英宗까지 계속된 再補訂이 있는 大藏經印行事業에서 인출된 <延祐藏經>에 한자씩 밀리는 것은 再補訂 과정에서 새로 번역된 장경의 편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蘇悉地羯羅供養法」上<도10-1><도10-2>의 표지화에 나타나고 있는 函次 容字에 대해 해석하려 한다. 그러나 함차 容字는 여전히 불분명 하다고 전제하고,²⁵⁾ 「至元錄」에 의하면 다만 「蘇悉地羯羅供養法」은 金藏에서 입장된 것으로 容字보다 한자 뒤인 止字函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다.

「蘇悉地羯羅供養法」上의 函次 容字가 「至元錄」의 函次와도 맞지 않는 것은 延祐年間に 입수한 新入譯經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函次가 한자씩 뒤로 밀리 것과 같이 한자가 앞으로 당길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蘇悉地羯羅供養法」上은 <延祐藏經>이 저본이 되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추정해 내고 있다.²⁶⁾

23) 元 世祖에 의한 티베트 경전이 수용에 의한 譯經 및 補訂事業에 의해 집대성된 불경.

24) 앞의 글. 「高麗國王大藏寫經からみた元朝の宗教政策-太山寺所藏大吉祥陀羅尼・普賢陀羅尼の制作年代の問題に寄せて-」 p.35-39

25) 앞의 글. 「高麗國王大藏寫經からみた元朝の宗教政策-太山寺所藏大吉祥陀羅尼・普賢陀羅尼の制作年代の問題に寄せて-」 p.34.

26) 앞의 글. 「高麗國王大藏寫經からみた元朝の宗教政策-太山寺所藏大吉祥陀羅尼・普賢陀羅

또한 이러한 대전제 위에 「金書密教大藏序」에 기록된 <金書密教大藏經>에 대한 고찰과 아울러 高麗大藏經에서나 北宋勅版에서 행방을 찾을 수 없는 「蘇悉地羯羅供養法」상의 표지에 쓰여진 函次 容字를 <金書密教大藏經>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蘇悉地羯羅供養法」상이 <金書密教大經>이라면 양식적인 면에서 완전히 틀릴 뿐만 아니라 函次 陪자가 高麗藏經과 같은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은 忠肅王 11년의 갑자년이 아니라 원종 5년의 甲子年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러한 大原嘉豊의 고찰은 논리적인 비약이라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金書密教大藏經>의 현재 基準作이 될 만 한 단 한권의 확실한 殘卷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蘇悉地羯羅供養法」상을 函次 容字에 관한 해석만으로 이를 <金書密教大藏經>이라고 보는 데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 그것도 <延祐藏經>이라고 할 수 있는 延祐年間に 제작된 「蘇悉地羯羅供養法」중에 函次 容字의 예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蘇悉地羯羅供養法」상이 <延祐藏經>이 저본이 된 <金書密教大藏經>이라는 가설은 역시 무리라고 생각지 아니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한국 서지학계의 연구 성과에 대해 전연 언급이 없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아니 할 수 없다.

한국에서 函次에 관한 연구는 주로 高麗初雕大藏目錄의 복원을 위해 주로 연구되고 있는데²⁷⁾ 이들 연구에 따르면 再彫藏經에서 「蘇悉地羯羅供養法」3권은 천자문 197의 詩函에 포함되고 있다 물론 大原嘉豊도 「蘇悉地羯羅供養法」3권이 詩函에 들어 있다는 점을 後註 (10)에서 밝히고는 있다.²⁸⁾

尼の制作年代の問題に寄せて-」 p.42.

27) 鄭駉謨, “高麗初雕大藏目錄의 復元,” 『書誌學研究』 제 2집 (1987).

姜順愛, “舊大藏目錄의 初雕大藏經 構成體系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 11집 (1996), 75-166.

姜順愛, “舊大藏目錄의 杜函-楚函까지의 初雕大藏經 構成體系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 12집 (1996), 75-166, 115-170.

28) 앞의 글, 「高麗國王大藏寫經からみた元朝の宗教政策-太山寺所藏大吉祥陀羅尼·普賢陀羅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에 의하면 「蘇悉地羯羅供養法」3卷은 “丹經(遼本藏經)에서는 이를 「蘇悉地羯羅經」이라고 하는데 「蘇悉地羯羅供養法」3卷과는經名도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전의 문장 역시 다른 데가 있으며 번역인은 1인이지만 丹經 중에는 시종 공양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제 목록으로서는 비록 文義非是가 없으나 후세 사람이 譯者를 거짓으로 할까 봐 丹經에 의거 해양자를 구존한다.²⁹⁾고 적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려장경의 「蘇悉地羯羅(供養法)經」은 丹經에 의존해 사성된 것임이 틀림없다.

고려장경 보다 늦게 편찬된 「至元錄」에 「蘇悉地羯羅供養法」이 止字函에 들어 있다는 것과 「蘇悉地羯羅供養法」上의 函次 容字가 止字函보다 하나 앞당겨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延祐年間に 인출된 <延祐藏經>을 저본으로 하였다 것도 역시 다른 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과 긴밀한 연관을 맺을 수 있는 연구가 柳富鉉에 의해 최근 발표되어 눈길을 끈다.³⁰⁾ 이에 대해 살펴보면 高宗33년(1246)에서 동왕35년(1248)까지 南海分司大藏都監에서 개판된 것이 그 중 가장 오래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宗鏡錄」의 함차의 경우가 그것이다. 海印寺 藏經閣에 고려재조장경과 함께 보존되고 있는 이 「宗鏡錄」은 函次의 중복으로 많은 학자들의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다. 그러나 최근 이에 대한 연구에서 再雕大藏經의 補遺版으로 알려져 있던 경우와는 달리 「崇寧藏」「毘盧藏」 중에서 훗날 보관되었던 「宗鏡錄」을 저본으로 하여 고려의 실정에 맞게 수정되어 복간되면서도 函次는 「崇寧藏」「毘盧藏」에 입장되었던 「宗鏡錄」의 函次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연구이다.

이와 더불어 南溪院石塔에서 발굴된 廉丞益發願의 「妙法蓮華經」7권본 1부의 변상화나 표지화가 고려국왕사경과 같은 양식을 나타내는 것은 金字大藏寫經所의 양식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³¹⁾, 「蘇悉地羯羅供養法」上에 대해서도

尼の制作年代の問題に寄せて」 p.55.

29) 앞의 글, 「高麗初雕大藏目錄의 復元」 p.38

30) 柳富鉉, “分司大藏都監板 <宗鏡錄>의 底本考,” 書誌學會, 『2005春季書誌學會學術發表論集』 69-79.

31) 「高麗史節要」 제20권, 忠烈王 7년 3월조.

「金書密教大藏」이라는 해석 외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大原嘉豊의 논리대로 <金書密教大藏經>의 증보분 40권은 延祐년간에 제작된 藏經들을 저본으로 했으며, 「蘇悉地羯羅供養法」上은 <延祐藏經>을 저본으로 한 「金書密教大藏」일까 하는 의문도 없지 않다.

大原嘉豊는 舊本 90권이라는 것을 「至元錄」이전에 성립된 不備를 管主八増補版의 秘密部大藏을 大德 10년(1306)에 補刻 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피력하면서 이것을 「至元錄」과 對校 한 것으로 보고, 그 당시까지 손에 넣지 못했던 증보분 40권이란 <延祐藏經>에 新入藏된 翻譯密教藏經으로 보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몇 가지 의문점을 언급하지 아니 할 수 없다.

大原嘉豊는 「金書密教大藏序」에서 「密教藏經이라는 이름으로 편찬 발간된 90권의 구분을 여러 경전과의 대교와 삭제 정정하여 만들었다」는데 무게를 두고 「至元錄」이전에 성립된 不備를 管主八増補版의 秘密部大藏을 大德 10년(1306)에 「至元錄」과 대교하여 補刻 한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大原嘉豊의 전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계중에는 이미 잘 알려져 再雕藏經에 수록되었던 밀교경전이 과연 한권도 입장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忠肅王 당시까지 손에 넣지 못했던 40권도 新入密教經典으로 延祐年間의 佛書들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논리를 비약 시켜 延祐年間에 제작된 「蘇悉地羯羅供養法」 중에 函次 容字의 예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蘇悉地羯羅供養法」上은 <延祐藏經>이 저본이 된 <金書密教大藏經>이라는 해석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지 아니 할 수 없다.

셋째 大原嘉豊는 「金書密教大藏序」를 지칭하는 高麗國王大藏經寫經事業에 있어서 <延祐藏經>이 저본으로 사용된 시기를 1314-1325년의 짧은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다.³²⁾

물론 이러한 大原嘉豊의 이론이 전연 근거 없다는 주장은 아니라고 본다.

32) 앞의 글, 「高麗國王大藏寫經からみた元朝の宗教政策-太山寺所藏大吉祥陀羅尼・普賢陀羅尼の制作年代の問題に寄せて-」 pp.44-45.

「高麗史」忠肅王 卽位年 7월조에도 이와 관련된 기록을 살필 수 있으니, 원 황제 仁宗이 서적 4천 3백71冊 共計 1만 7천권을 賜하니 모두 宋의 비각에 소장되었던 것이라는 기록이 있다. 충숙왕 즉위년이 바로 仁宗이 延祐로 年號를 고친 해이다. 그런 만큼 1만 7천권은 皇慶年間(1312-1313)의 봉척에 의한 역경 사업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³³⁾

그러나 <延祐藏經>을 저본으로 한 高麗國王大藏經寫經事業이 성립되었다는 이론을 설정 하려면 「高麗史」 「高麗史節要」 등의 고려기록의 광범위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英宗의 제위 기간은 3년에 불과했지만, 그의 제위기간 중, 忠宣王의 吐蕃行으로 고려왕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든가를 생각 하면 英宗年間に 고려가 <延祐藏經>을 저본으로 하여 高麗國王大藏經寫經事業을 펼쳤다는 것이 가능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元の 英宗이 즉위 하던 해인 忠肅王 7년 12월 원 황제가 불경의 배움을 명목으로 삼아 上王(忠宣王)을 吐蕃의 撒思結의 땅에 유배를 보냈고, 그 이후 英宗皇帝의 皇叔이었던 晉王이 帝位에 나아가 泰定皇帝가 되고, 대사면이 있을 때 이 泰定大帝에 의해 上王이 吐蕃으로부터 소환 되었다는 「高麗史」의 기록으로부터 생각해 볼 때, <延祐藏經>을 저본으로 하여 高麗國王大藏經寫經事業을 펼쳤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高麗史」는 上王의 吐蕃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상당량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上王이 신하들에게 자신의 귀환을 힘쓸 것을 당부한 사실이나, 신하들이 원의 황실에 上王의 歸還을 위해 힘쓴 사실, 그리고 盤纏(노자)을 상왕에게 보낸 사실까지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³⁴⁾

충숙왕 10년(1323) 9월 式目錄事 沈文淑이 원으로부터 돌아와 御史大夫 鐵失이 황제 英宗을 南坡에서 죽였다는 소식을 전했고, 그때 상왕이 소환되었다는

33) 앞의 글, 「高麗國王大藏寫經からみた元朝の宗教政策-太山寺所藏大吉祥陀羅尼・普賢陀羅尼の制作年代の問題に寄せて-」 p.37

34) 「高麗史」卷第二十六, 忠肅王 8년 冬 10월 6일조, 9년 5월조, 10년 정월조, 10년 11월조, 「高麗史」列傳 李濟賢조 등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때까지 上王의 소환에 勞心焦思하던 고려조정의 입장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또한 영종 제위년간에 瀋王과의 갈등으로 忠肅王의 입지가 고려 내에서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忠肅王 11년(1323) 춘 정월 갑인에 元 皇帝가 忠肅王에게 勅하여, 還國하게 하고 국왕인장을 謝 하게 하였다는 「高麗史」 기록³⁵⁾으로 그 간의 忠肅王의 고충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高麗史」의 기록을 좀더 살펴보면 英宗年間に 高麗國王大藏經寫經事業이 행해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충숙왕 8년(1320)에는 왕의 還國이 瀋王의 무리에 의해 저지되어 還國을 할 수 없었다는 기록이나, 同王 9년 왕의 復位還國을 청하는 글을 심왕의 무리들이 방해했다는 등의 기록이나, 瀋王 暉가 薊國大長公主의 형과 결혼하여 英宗 皇帝의 사랑을 얻고 있는 점을 믿고, 前贊成事 權漢功 등이 그를 세울 모의를 위해 백관들에게 서명을 시킨 기록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록들로 미루어 볼 때, 瀋王 暉를 의식해서도 “여러 경전을 비교하여 혹은 고치고 혹은 삭제하여 바르게 만들고 또 거두지 못한 것을 더 구하여 40권을 얻었다”는 표현이 과연 가능 했을 까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표현은 仁宗의 증보사업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쳐 질 가능성이 크며, 심왕의 무리들에게 원 황실에 무고 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일이 될 것이므로 영종 제위기간 중에 李濟賢이 「金書密教大藏序」를 썼다면 과연 이렇게 기술할 수 있었을 까하는 생각이 든다.

넷째 大原嘉豊가 <延祐藏經>이 저본이 되었다고 보는 「蘇悉地羯羅供養法」, 上은 진정 <金書密教大藏經>인가를 위해 「金書密教大藏序」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다. 그러한 단서는 「金書密教大藏序」의 내용 중에서 만드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金書密教大藏序」의 필자인 李濟賢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高麗史」열전 李濟賢조에 의하면 忠宣王이 나라를 忠肅王에 전하고 燕邸에

35) 「高麗史」卷第二十七.

留하면서 萬卷堂을 짓고書와史를 즐기면서 李濟賢을 불러 들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金書密教大藏序」가 쓰인 시기는 忠肅王 초년은 아닌 듯하다.

또한 「金書密教大藏序」에 의하면 <金書密教大藏經> 寫成을 주장한 인물이 奉翊大夫判內府史事上護軍 羅英秀라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羅英秀는 「高麗史」에 단 한번 기록되고 있는데, 內府史事로 忠肅王 14년에 이등공신이 된 인물로 밝혀져 있다. 이때 二等功臣이 된 인물들은 忠肅王이 忠宣王을 따라 燕京에 있으며, 위를 물리려 할 때, 忠肅王의 편에서 충절을 지킨 인물들이라고 「高麗史」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羅英秀라는 인물의 고찰에서 忠肅王과 瀋王의 갈등 또한 배제 할 수 없다.

「高麗史」世家 忠肅王 9년의 기록에서 보는 것과 같이 瀋王을 위한 서명 있을 때에도 철저히 忠肅王 편에 서 있었던 인물이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 할 수 있게 하는 단서를 「金書密教大藏序」에서 찾을 수 있으니, 왕이 그의 주청을 받아 들여 內帑金으로서 <金書密教大藏經> 130권을 寫成했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忠肅王이 그의 주청을 받아 內帑金으로 <金書密教大藏經> 130권을 寫成했다면 그것은 英宗이 폐위된 후이어야만 할 것 같다.

이 뿐만 아니라 「金書密教大藏序」의 기록 중에서 130권의 밀교경전을 부별로 나누어 寫書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再雕藏經에 포함되어 있던 「蘇悉地羯羅供養法」의 경우는 완전히 빠진 것인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 넣었다는 것인지도 밝혀야 할 문제이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 「まとめと展望」에서는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의 발원문에 나타난 「甲子」의 년대 추정의 단서로서 元の板刻大藏經 정책의 의의를 逆으로 추정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至元錄」과 「至元錄」의 函次 千字文 字號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다.

이러한 그의 논리에서 학문연구에 있어서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 했다는 만족감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작품은 그 작품이 제작된 나라와 그 시대 상황에 대한 고찰이 선행된 다음 주변국의 정세와 교섭 관계를 고찰해야 한다는 기본 태도에서 혹시 벗어난 것은 아닐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의 발원문에 나타난 干支가 갑자기 甲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甲子의 誤記로 보인다.

또한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사경의 「佛說大吉祥陀羅尼經」부분에 해당하는 第四紙 裏書는 佛說大吉祥陀羅尼經 / 陪 / 山人 日正 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大原嘉豊는 陪 山人 墨로 보고 있다

그러나 陪는 函次の 千字文 字號이고, 山人 다음에 나타난 字體는 日자와 正자가 아래위로 붙어 있는 하나의 글자인 墨가 아니라, 日正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밝혀두고 싶다. 충렬왕 원년에 제작된 호암박물관 소장의 「不空羼索神變眞言經」의 경우도 裏書의 安蹄가 하나의 글자처럼 아래위로 공간 없이 붙여서 쓴 점을 감안 할 때, 이는 日正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도 밝혀 두지 아니 할 수 없다. 日正은 安蹄와 같이 이 경전의 書者이다

2.3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에 나타난 서체의 특징

「金書密教大藏序」의 내용의 서체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고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에 나타난 서체의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에 나타난 서체의 특징을 고찰하기에 앞서 「金書密教大藏序」에 나타난 <金書密教大藏經> 130권에 대한 저자 李濟賢의 書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겠다.

「金書密教大藏序」에 기록에 <金書密教大藏經> 130권을 名筆에게 맡겨서 寫書시켰다고 적고, ‘그 필치는 列星이 어울려 빛나고 여러 꽃송이가 한꺼번에 핀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李濟賢은 忠宣王의 부름을 받고 원으로 가서 萬卷堂에 머물면서³⁶⁾ 이미 松雪體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고, 어느 의미에서는 그 이후 松雪體의 고려수입을 주도한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李濟賢의 서체에 대한 극찬을 새겨서 읽을 필요가 있다.

36) 「高麗史」 열전 李濟賢條.

이러한 이제현의 서체에 대한 평가 더불어 「蘇悉地羯羅供養法」上의 서체와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의 서체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蘇悉地羯羅供養法」上의 서체는 송설체의 흔적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 忠宣王 이후 작품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書體에서 보여주는 특징은 「金書密教大藏序」에 기술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려하지 않다.

그러나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의 서체는 세필로서 대단히 유려하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서체의 전체적인 느낌에서 歐陽詢體 특징을 읽을 수 있으나, 일견해서 볼 때 王羲之體의 특징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松雪體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로가 가로보다 약간 길게 쓰인 점에서나, 力入이 사용된 점으로 송설체와는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경의 서체에서 송설체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어, 大原嘉豐나 松林宏典의 주장처럼 원종조의 사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에서 松雪體의 양식을 가장 현저하게 반영하는 字體로서는 ‘羅’字<도11-1>와 ‘觀’字, ‘之’字, ‘心’字를 들 수 있다.

趙孟頫의 <玄妙觀重修三門記>³⁷⁾에 나타난 ‘羅’字<도11-2>의 경우, 위의四字 변에서 아래쪽 획획이 전체적으로 그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아래쪽의 維字의 糸字변에서 세 개의 점이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쓰인 점이나, 佳의 특징도 <玄妙觀重修三門記>에 나타난 ‘羅’字와 거의 같은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羅’字에 있어서 이러한 특징은 11년 뒤에 寫成된 忠烈王 元年의 「不空羼索神變眞言經」에서도 ‘四’의 아래 획이 정확하게 그어지는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유의하지 아니 할 수 없다. 「蘇悉地羯羅供養法」上의 羅字에서도 이러한 특징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觀’字의 경우<도12-1>도 초두(艸) 아래쪽으로 두개의 ‘口’가 생략되고 있는 점이나, 左劃의 ‘見’字 형상이 <玄妙觀重修三門記>에 나타난 ‘觀’字<도

37) 平凡社, 「西道全集」 제17권 中國・元明I, 도판 2. 二玄社 「中國書法選」49, 趙孟頫 p.10.

12-2>와 거의 같은 양식으로 쓰여지고 있다.

松雪體의 가장 특징적 양식을 나타내는 ‘之’字<13-1>, ‘心’字<도14-1> 역시 <玄妙觀重修三門記>에 나타난 양식적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도13-2><도14-2>

또한 ‘門’字形<도15-1><도15-2>에서도 얼마간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며, ‘時’字<도16-1><도16-2>, ‘有’字<도17-1><도17-2> 역시 <玄妙觀重修三門記>에 보이는 양식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戒’字<도18-1>와 ‘爲’字<도19-1>의 경우도 역시 趙孟頫의 『漢汲黯傳』³⁸⁾에 나타나는 ‘城’字<도18-2>와 ‘爲’字<도19-2>와 거의 같은 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草書의 경우도 高麗國이라고 쓰여진 ‘高’字<도20-1>가 <後赤壁賦>의 송설체 초서와 닮았다는 점에 강조하지 아니 할 수 없다.<도20-2>

앞서 말한바와 같이 『蘇悉地羯羅供養法』上에도 송설체의 흔적이 두드러진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경이 반드시 『金書密教大藏序』가 기술하고 있는 <金書密教大藏經>이라고 하기에는 표지화나 서체의 양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고려국왕발원들의 사경의 표지화의 양식이 두 세 개의 연화를 지그재그로 배치한데 비해 『蘇悉地羯羅供養法』上의 표지화는 두개의 연화를 상하로 배치한 점에 있어서나, 같은 忠肅王代의 고려국왕발원인 『阿育王太子壤目因緣經』의 표지화의 날카로운 필치와는 달리 굵고 둔한 선으로 표현된 점에 있어서나, 書體에서 보여주는 특징이 『金書密教大藏序』에 기술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려하지 않다는 점에서 『蘇悉地羯羅供養法』上이 과연 <金書密教大藏經>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일말의 의문이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을 접한 후 더욱 강하게 느껴진다.

다만 무슨 연유로 년호를 사용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낼 수는 없다.

그러나 서체에서 松雪體의 유입이 있는 후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면 그것

38) 二玄社, 『中國書法選』 49, 趙孟頫集 10. p.17

은 일단 忠宣王이후라는 대전제에서 벗어 날 수 없다. 더구나 鍋島報效會 소장 「妙法蓮華經」 8권본의 표지화양식과를 연계시켜 볼 때,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은 忠肅王 11년인 1324년 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

大原嘉豊가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을 1264년인 갑자년으로 년대를 올려 잡는 것은 지나치게 元 중심의 函次 고찰에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다.

3. 結 論

이러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때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의 제작년대를 원종 5년인 1264년의 갑자년으로 올려 잡는 것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하지 아니 할 수 없다.

특히 표지화의 양식이 佐賀縣立博物館 기탁품인의 「妙法蓮華經」 8권본의 표지와 같다는 점에서는 역시 忠肅王代에 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충렬왕 이후 계속되어 온 고려국왕사경과는 또 다른 종류의 고려국왕발원 사경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체의 양식에서 이미 송설체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경은 충숙왕대의 작품일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며, 「金書密教大藏序」에 나타난 「金書密教大藏經」이라는 추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을 써서, 어려움 속에서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의 견학을 허락해 준 神戸市立博物館의 學藝員 松林宏典씨에게 감사한다. 덕분에 「년대 불확실한 高麗寫經 表紙畫에 관한 연구Ⅱ」에서 이 사경을 언급할 수 있었고, 그 후 사진 자료를 송부해 주는 친절을 베풀어 주어 이번 논문을 쓸 수 있게 도와준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

<참고문헌>

권희경. 「高麗寫經의 研究」. 미진사: 1986, 414.

韓國學 文獻研究所 編. 서울: 亞細亞文化社 간행. 158-159.

姜順愛. “舊大藏目錄의 初雕大藏經 構成體系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 11집 (1996), 75-166.

柳富鉉. “分司大藏都監板 <宗鏡錄>의 底本考.” 書誌學會. 『2005春季書誌學會學術發表論集』. 6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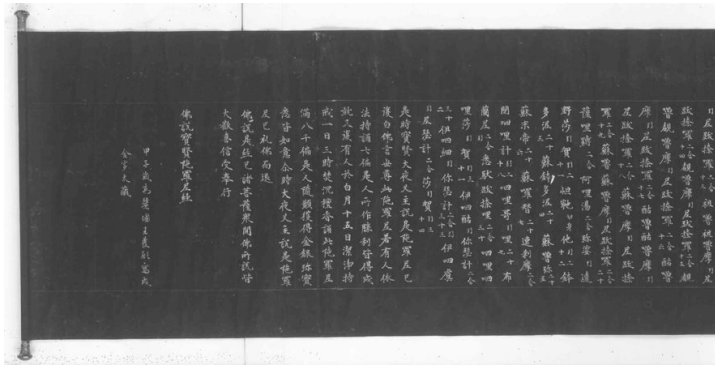
<도판>



<도 1> 太山寺 所藏 佛說大吉祥陀羅尼經·普賢陀羅尼經 表紙畫



<도 2-1> 佛說大吉祥陀羅尼經·普賢陀羅尼經 卷首



<도 2-2> 太山寺所藏 佛說大吉祥陀羅尼經·普賢陀羅尼經卷尾



<도 3> 권축의 금속장식



<도 4> 사가박물관 기탁품 묘법 연화경 8권본 표지화



<도 5> 太山寺 所藏 佛說大吉祥陀羅尼經·普賢陀羅尼經 變相



<도 6> 文殊師利問菩提經 變相



<도 7> 佛說大吉祥陀羅尼經의 裏書



<도 8-1> 阿育王太子法益壤目因緣經 表紙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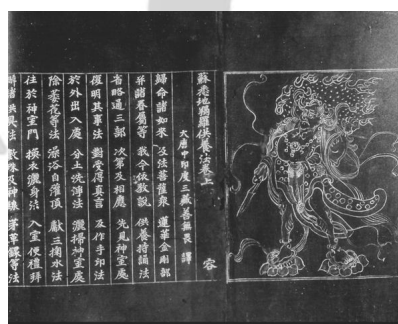
<도 8-2> 阿育王太子法益壤目因緣經 表紙畫



<도 9> 不空羼索神變眞言經 表紙



<도 10-1> 蘇悉地羯羅供養法上 表紙畫



<도 10-2> 蘇悉地羯羅供養法上 變相 및 卷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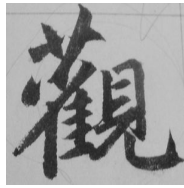
<도 11-1>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의 '羅'字



<도 11-2>
玄妙觀重修三門記의 '羅'字



<도 12-1>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의 '觀'字



<도 12-2>
玄妙觀重修三門記의 '觀'字



<도 13-1>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의 '之'字



<도 13-2>
玄妙觀重修三門記의 '之'字



<도 14-1>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의 '心'字



<도 14-2>
玄妙觀重修三門記의 '心'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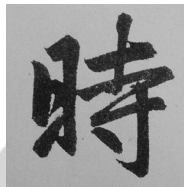
<도 15-1>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의 '間'字



<도 15-2>
玄妙觀重修三門記의 '間'字



<도 16-1>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의 '時'字



<도 16-2>
玄妙觀重修三門記의 '時'字



<도 17-1>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의 '有'字



<도 17-2>
玄妙觀重修三門記의 '有'字



<도 18-1>
佛說大吉祥陀羅尼經·佛說普賢陀羅尼經의 '成'字



<도 18-2>
漢汲黯傳의 '城'字



<도 19-1>
佛說大吉祥陀羅尼
經・佛說普賢陀羅
尼經의 '爲'字



<도 19-2>
漢汲黯傳의 '爲'字



<도 20-1>
佛說大吉祥陀羅尼
經・佛說普賢陀羅
尼經의 '高'字



<도 20-2>
後赤壁賦의 '高'字

K C I